

	보도자료	2026. 6. 26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강병수	☎ 760-7901
		업무담당자	임충석	☎ 760-792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신품종 해찬 콩 일관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본격화

- 서부지역 20ha 재배단지 조성...과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 시스템 구축 -

- 제주지역 나물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부지역에 20ha 규모의 신품종 기계화 재배단지가 조성된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강병수)는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신품종 ‘해찬’ 콩 일관 기계화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 - 제주지역은 전국 나물콩 생산량의 약 80%를 차지하는 핵심 주산단지다. 그러나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 - 이에 농촌진흥청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가 가능한 맞춤형 신품종 보급에 주력해 왔다.
- 서부농업기술센터는 6월 하순부터 서부지역 시범단지에 기계 수확이 가능한 ‘해찬’ 콩을 보급하고 재배 전 과정에 기계화 작업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.
 - ‘해찬’ 콩은 기존 품종보다 성숙기가 빠르고, 착협고가 15~17cm로 높아 기계 수확에 적합하다. 또한 이상기후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며, 수량 성과 수율도 우수하다.

* 착협고: 식물체 지상부(땅 표면)에서 첫 번째 꼬투리가 달리는 위치까지 높이

- 시범단지에는 ‘해찬’ 콩 종자와 함께 정밀 파종기, 생육관리 장비, 콤바인 등 일관 기계화 재배를 위한 장비가 투입된다.
- 7월 상순까지 기계 파종을 완료하고 재배관리 기술지도를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. 수확 이후 수량성을 조사해 사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.
-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된 신품종 나물콩은 농가 간 자유통교환 방식으로 종자를 공급해 재배면적 확대와 신품종 보급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.
- 임충석 농촌지도사는 “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”라며 “기계수확에 적합하고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‘해찬’ 콩 보급을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제주지역 나물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”고 말했다.